

문헌정보연구의 이론 활용성 분석

An Analysis of Theory Use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정동열(Dong Youl Jeong)*, 김성진 (Sung Jin Kim)**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논문에서 저자들의 이론 활용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연구된 654편의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은 연구논문의 연대별 생산성, 세부주제영역별 생산성, 연구에 활용된 이론의 유형과 근원, 개별 이론별 활용도, 세부주제 영역별 활용도, 학회지별 활용도 등에 대한 개념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론의 개념적 기준 설정과 문헌정보연구의 세부주제영역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 특히 이론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론 활용 5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uthors' use of theory in 654 articles that appeared in two co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during last three decades. In order to analyze degree of theory use of LIS, such as, publication productivity, growth and distribution of theory in subfields, name and origin of theory, usability of each theory, subfields and journals, and so on, content analysis of LIS theories was performed through conceptual and empirical stud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suggested a couple of new analytical methods, so called, 'Subfield Classification Scheme' within LIS, and '5 Degrees of Theory Use' model for the first time.

키워드 : 이론 활용성, 이론의 생산성, 정보이론 활용, 정보이론 주제별 분석,
문헌정보학 주제분류, 이론활용 5단계

Theory Use, Theory Productivity, Theory Building, Theory Analysis
Subfield Classification, Degree of Theory Use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dyjeong@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수료 (sjin_kim@hotmail.co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역시 타학문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공유한 채 50여년 동안 지식의 추구를 위해 발전해 왔다. 반세기 동안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고유한 학문 영역으로 성장하였는지, 문헌정보학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타학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등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장과정과 연관성을 파악하는 일은 문헌정보학의 향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학문의 성장 평가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고 개발된 과학적 이론의 성장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그 학문이 추구해온 지식의 성장은 해당 학문 분야 이론의 성장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에서의 이론은 문헌정보학 일반분야 뿐만 아니라 정보검색, 정보탐색과정, 이용자연구, 정보시스템, 정보의 평가 및 계량정보학 등의 하위 연구 분야의 지속적인 관찰에서 얻어진 일관된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 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사용된 핵심 개념과 일관된 규칙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준다.

이렇듯 이론연구는 실증적 연구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 문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에서 관찰되어야 하는 특징들을 알려주고 관찰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론연구는 기존 이론 자체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이론을 무효화시키거나 강화시키고, 검증될 만한 새로운 현상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론에 계량정보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학문의 성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동일 주제 분야의 이론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특정 학문분야의 변화 및 성장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연구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론연구가 부족하여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정동열 1993; Hj ørland 1998). 1950년대 이후에 실시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의 대다수가 비이론적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1950년에서 1975년 사이의 연구논문을 조사한 결과, 대상 논문수의 14%만이 이론연구였고(Peritz 1980), 1980년도의 연구동향 분석 결과, 이론을 사용한 논문은 전체 21.2%를 차지했으나 문헌정보학 이론 그 자체에 관한 연구만을 논하면 3% 미만

이었다(Nour 1985). 1984년도에는 91개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저널을 조사한 결과 13%만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에 이론을 적용하거나 논했으며 (Freehan, Gregg, Havered, & Kester 1987), Jaervelin과 Vakkari(1990)의 1985년도 조사에 따르면 37개의 핵심 저널 중 논문의 10%만이 이론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정보탐색, 전문직,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최근에 Julien과 Duggans(2000)가 정보요구와 정보이용과 관련된 선행논문 300편을 대상으로 1985-1989년과 1995-1999년 두 기간 동안 종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18.3%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McKechnie과 Pettigrew(2002)는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 6종에 게재된 1,160 연구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34.2%의 연구논문이 제목이나 초록 혹은 본문에 이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연구논문 1편당 평균 0.93회 정도의 여러 학문의 이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이론의 개발이나 활용은 아직 미미한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외 핵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성격을 분석하였을 때, 이론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사용한 연구가 아주 미약한 수준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이론의 활용 정도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활용 정도는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론연구의 부족 현상은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론형성을 위한 기반이나 개념적 분석 및 과학적 설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아마 이런 현상은 문헌정보연구의 태생적 기반이 전문적인 실무에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Jaervelin과 Vakkari, 1990, p.415).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이론연구가 미흡하며, 문헌정보학 분야의 제반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정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학술지가 최초로 발간된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주요 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구 도서관학, 1970~1992년), 정보관리학회지(1984~1992년), 서지학연구(1986~1992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정보이론 분야의 논문은 338편의 논문 중 총 4편으로 1.2%에 불과했다(정동열 1993). 그 이후 정동열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이론 분야의 연구는 280편의 논문 중 총 2편으로 0.7% 정도였다(조찬식 1999). 즉, 국내에서 문헌정보학 연구가 시작되어 1997년까지 이론연구는 평균 0.9%에 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론연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

으나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론연구가 절실히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쳐 이론의 사용을 주장하거나 문헌정보학 세부주제영역 내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계량정보학적 연구와 내용분석을 실시한 이론연구도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쳐 이론 사용의 중요성을 언급한 논문은 Boyce & Kraft(1985), Grover & Glazier(1986), Hjørland(1998) 등이 있고, 정보검색 분야는 Spink(1997),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Shackel(1997), 이용자의 정보행위 분야에서는 Vakkari(1997), Zweizig & Dervin(1977) 등이 있다. 또한 저자의 논문 생산수와 인용패턴을 대상으로 계량정보학적 연구와 내용분석을 실시한 연구에는 Atkins(1988), Cronin & Overfelt(1994), Davis & Cronin(1993), Kumpulainen(1991), Mularski(1991), Persson(1994), Pettigrew & Nicholls(1994), Varlejs & Dalrymple(1986), White & McCain(1998) 등이 있다

1.2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학술지가 발행되기 시작한 1970년부터 최근까지 게재된 연구논문의 이론 활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논문의 이론 활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해당 학문분야 전반의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분석대상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197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단위의 연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첫째, 연구논문의 연대별 생산성과 세부주제 영역별 생산성은 어떠한가? 둘째, 문헌정보연구에서 활용된 이론의 유형과 그 근원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논문에서 어떤 이론이, 어느 정도로, 어느 세부주제영역에 활용되었는가? 넷째, 문헌정보연구에서 이론의 활용성이 세부주제 영역별로, 학회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1 : 두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세부주제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 연구논문에 활용된 이론의 근원과 학회지별 활용분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 세부주제 영역별로 활용된 이론 유형이 학회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 : 이론의 활용성에 있어 학회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과 분석기법

2.1 분석대상과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술지로서 동료 연구자들에 의한 게재심사(peer-review)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학술지의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부분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학회지는 다소 최근의 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이 게재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1970년 창간 이래 1999년까지 38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정보관리학회지는 1984년 이래 1999년까지 265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분석대상 연구논문 수는 총 654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 발행. (연구논문 389편)
 - 제1권(1970)~제15권(1988) : 연간 발행
 - 제16권(1989)~제29권(1995) : 반년간 발행
 - 제30권(1996)~제33권(1999) : 계간 발행
-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발행. (연구논문 265편)
 - 제1권(1984) : 연간 발행
 - 제2권(1985)~제14권(1997) : 반년간
 - 제15권(1998) : 3회 발행
 - 제16권(1999) : 계간

각 연구논문의 이론 활용 상황이 개별적인 내용분석을 통하여 코딩이 이루어졌다. 분석항목은 연도별 논문 생산성과 세부주제 영역별 논문 생산성, 이론 활용 논문수와 이론 활용 횟수, 이론명과 이론의 근원 및 학회지별 분포, 이론별 활용 현황,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 활용 현황, 학회지별 이론 활용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론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론의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론설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학문의 연구에서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이론(theory), 대이론(grand theory), 기반이론(grounded theory), 공식이론(formal theory), 모형

(model), 법칙(law), 패러다임(paradigm) 등으로 명명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다른 연구자의 연구논문에서 인정된 이론은 가능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론의 경계를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실제 분석을 위한 이론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기준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통계분석과 관련된 통계기법은 이론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다른 이론을 개발한 경우는 이론으로 인정하였다. 제외되는 경우의 예로는 프리드만의 이원변량분석, 피셔의 확률검증방법,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관계, 확률이론, 분포이론, 베이지안 이론, 포아송(Poisson) 분포 등 다양한 통계기법들이다. 이러한 이론을 활용하여 개발된 이론의 예로는 포아송분포를 응용한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 Bookstein과 Swanson의 자동색인의 확률이론 등은 새로운 이론들이다.

둘째, 운영연구(Operation Research)에서 개발된 수리계획법, 네트워크모형, 대기행렬이론, 결정이론 등은 제외되나, 이러한 이론이나 모형을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에 응용하거나 적용하여 새로운 이론이나 법칙을 개발한 경우는 이론으로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마코브모형을 응용한 Morse의 도서대출모형은 이론으로 인정하나, Morse 모형의 제한점을 확장한 Morse-Chen의 확장모형과 같이 문헌정보학분야의 기존 이론이나 모형을 수정하거나 확장한 것은 독창성 차원에서 이론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계량정보 연구에서 기존 이론의 변형이나 보완된 연구는 이론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Small의 동시인용분석은 독창적인 이론으로 간주하나, White와 Griffith의 저자동시인용분석은 Small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이론에서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Cranfield 연구에서 Cleverdon을 중심으로 연구된 재현율과 정확률은 이론으로 인정하되, 그로부터 파생된 누락률, 잡음률, 배제율 등은 제외하였다.

넷째, 국내외에서 제시된 분류 및 목록규칙은 이론에서 제외하였다. 즉, DDC, UDC, KDC, Ranganathan의 콜론분류법, Cutter의 저자기호표, 이재철 저자기호표, 백진분류법, AACR2, KCR 등은 이론이라기보다 방법이나 규칙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그러나 Ranganathan이 발표한 분류의 3단계 이론, Cutter의 목록법 이론, Osborn의 목록법 위기이론, Lubetzky의 목록규칙 및 원칙 이론, Houten의 목록의 철기시대론 등은 이론으로 포함되었다.

다섯째, 도서관의 장서나 시설 등 도서관에 관련된 제반 평가기준이나 공식 및 표준은 이론에서 제외하였다. ALA 가이드라인, ACRL 기준, Clapp과 Jordan의 장

서평가공식,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 등은 제외하였다.

2.2 분석방법

2.2.1 세부주제영역 분류

각 연구논문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에 따라 22가지 세부주제영역(subfield classification)에 의해 구분되었다. 세부주제영역 구분의 기본적인 목적은 문헌정보학 연구영역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지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관별하기 위함이다.

세부주제영역의 구분은 Jaervelin과 Vakkari(1990)의 연구와 정동열(1993)의 연구를 기준으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Jaervelin과 Vakkari(1990)의 연구에서는 11개 대주제(main classes)와 23개의 하위주제(subclasses)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동열(1993)의 연구에서 세부주제영역 간에 차별성 문제가 있는 영역과 애매한 영역, 그리고 국내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을 보완하여 13개의 대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간 연구동향의 변화와 하위주제 구분의 복잡성 및 불필요성으로 인하여 22개 세부주제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외 문헌정보학 연구의 내용분석에서 상당한 분량의 연구들이 다수의 하위영역을 다루고 있어 하위영역간의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전공이 설치된 국내 32개 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의 교과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2.2.2 이론의 근원

문헌정보연구에 활용된 이론의 근원(origin)을 문헌정보학(LIS), 사회과학(Social Sciences), 인문과학(Humanities), 그리고 자연과학(Sciences)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의 근원에 대한 분석은 문헌정보학 분야 고유의 이론에 대한 활용 정도와 분포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른 학문분야에서 유래된 이론의 활용 정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론의 근원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학제적인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학문간의 인접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론의 근원을 세분하여 교육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생물학 등 개별 학문분야(a individual discipline)로 세분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해

당 학문을 포함한 대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이론 발표자의 소속 학문분야 추적의 어려움과 많은 이론의 학제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3 이론의 활용성 기준 설정

연구논문의 거의 대부분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활용하게 되며, 선행연구의 활용 정도는 연구자마다 그리고 연구논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연구논문에서 이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동일한 현상이다. 같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연구자가 다르거나 연구내용이 달라지면 활용 정도는 당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론의 활용성은 그 학문의 지적구조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의 이론 활용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 활용 5단계'(5 degrees of theory use)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의 활용 정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단순언급(Spot Citing), 배경연구(Background Review), 이론검토(Theory Discussion), 이론응용(Theory Application), 그리고 분석평가(Analytical Evaluation)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활용성에 대한 5단계 구분은 다소 주관적이며 인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사례를 들어 개념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연구문제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활용 정도를 구분한 후, 불일치한 부분은 공동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최대한 일관성 있게 분석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였다.

- (1) 단순언급(Spot Citing) : 가장 낮은 단계인 단순언급 정도는 연구논문의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연구 부분에서 한두 단어로 간단히 소개된다. 대체로 참고문헌에 인용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문헌정보 연구에 자주 활용되는 사회과학분야의 이론으로는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태도이론(attitude theory), 행위학습이론(behaviour learning theory),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 등이 있다”라는 문단에서 소개되는 이론들이다. 또 다른 예로는 본 논문의 ‘1.1 연구의 배경’ 마지막 문단처럼 “저자의 논문 생산수와 인용 패턴을 대상으로 계량정보학적 연구와 내용분석을 실시한 연구에는 Atkins(1988), Cronin & Overfelt(1994), Davis & Cronin(1993), Kumpulainen(1991), Milarski(191), Persson(1994), Pettigrew & Nicholls(1994), Varlejs & Dalrymple(1986), White & McCain(1998) 등이 있다”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간략하게 알려주는 정도이다.

- (2) 배경연구(Background Review) : 배경연구는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배경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통상적인 선행연구 혹은 선행문헌에 대한 활용 수준을 의미하며 한두 문장으로 표현된다. 본 논문의 ‘1.1 연구의 배경’에서 선행연구로 언급된 Peritz(1980), Nour (1985), Jaervelin과 Vakkari(1990), Julien과 Duggans(2000), McKechnie과 Pettigrew(2002)의 연구내용이 한두 문장으로 언급되면서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의 이론 활용 수준이 배경연구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이론검토(Theory Discussion) : 이론검토 수준은 이론 활용성의 세 번째 단계로 이론 그 자체에 대하여 한 페이지 내외의 분량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여러 이론을 소개한 후, 상호 비교하는 형식의 연구논문에서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윤구호(1989)의 “검색효율 측정척도에 관한 연구”(도서관학 16: 177-205)에서 Cranfield의 적합성 평가기법, Swets 모델, Cooper 모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분석하여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외국 문헌의 예로 Wilson(1999)의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의 연구에서 Wilson(1981)의 정보탐색행위모델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model), Dervin(1983, 1996)의 의미형성이론 (sense-making theory), Kuhlthau(1991)의 정보탐색과정모델(information searching process model), Ingwersen(1996)의 정보검색과정모델(IR process model), Saracevic(1996)의 정보검색과정모델(IR process model)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설명과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 (4) 이론응용(Theory Application) : 이론응용 단계는 이론검토 단계 수준과 같이 깊이있게 분석됨과 동시에 해당 연구의 주요한 연구방법이나 분석기법으로 활용되는 수준이다. 특히 실험적 연구에서 해당 이론이 개념적 축(conceptual underpinnings)의 역할과 데이터 분석방법(analytical method)으로 활용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한복희(1993)의 “로트카 법칙과 학술정보의 생산성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 53-71)에서 로트카의 법칙에 대하여 별도의 장(章)으로 소개한 후, 우리 나라 수학분야 학자들의 학술정보 생산성 분석에 주요 분석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 (5) 분석평가(Analytical Evaluation) : 연구논문 전반에 걸쳐 해당 이론의 응용이나 분석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재평가되는 연구의 정도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6권에 게재된 정영미(1979)의 “Shannon의 정보이론과 문헌정보”에 관한 연구는 Shannon의 정보이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을 문헌정보학의 색인분야에 적용시킴으로써 정보검색 시스템의 검색효율을 측정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Shannon의 정보이론이 연구논문 전반에 걸쳐 활용되었다.

다른 예로는, Cole(1993)의 연구논문 “Shannon revisited: information in terms of uncertainty”(JASIS, 44(4), 204-211)에서 Shannon의 불확실성 개념이 연구논문 전반에 걸쳐 재조명되고 있다.

3 이론 활용성 분석 결과

3.1 시대별 및 세부주제 영역별 논문 생산성

두 학회지에서 생산된 654편의 연구논문에 대한 시대별 및 22가지 세부주제 영역별 분석은 <표 1>와 같다. 학회지별 논문 생산성이 높은 세부주제영역과 전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분류/목록 영역이 56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문헌정보학교육/도서관교육/독서지도(43편), 정보시스템/기술/데이터베이스(30편), 정보제공서비스(26편), 서지학(24편), 정보검색/정보탐색과정/탐색평가(21편), 도서관정보정책/도서관평가(20편), 전문직(19편), 도서관사(19편), 도서관경영/행정(19편), 도서관정보정책/도서관평가/정보사회경제(19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과 기록관리학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관리학회지는 정보시스템/기술/데이터베이스 영역이 44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정보검색/정보탐색과정/탐색평가(43편), 분류/목록(28편), 색인/초록(25편), 계량정보(19편), 정보네트워크/협력체제/유통(12편),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인터넷자원/전자정보/멀티미디어(10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사, 기록관리학, 서지학 영역은 정보관리학회지에 1편도 게재되지 않았으며, 연구방법론(1편) 자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세부주제영역에 차별성이 존재하는가(연구가설 1)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두 학회지의 역할과 특성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문헌정보학회지는 분류/목록, 교육, 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서지학, 도서관정보정책, 전문직, 도서관사 등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반면 정보관리학회지는 정보시스템, 정보검색, 분류/목록, 색인/초록과 계량정보 영역의 연구에 거의 집중된 분포를 보였다.

<표 1> 세부주제별 논문 생산성

세부주제영역	시기	1970-79		1980-89		1990-99		소계		계
		문헌	정보	문헌	정보	문헌	정보	문헌	정보	
문헌정보학 일반/정보이론/개념		1	-	-	1	4	7	5	8	13
전문직		3	-	3	1	13	5	19	6	25
도서관사		4	-	7	-	8	-	19	-	19
출판/저작권		1	-	1	3	5	6	7	9	16
문헌정보학 교육/도서관교육/독서지도		4	-	15	-	24	6	43	6	49
연구방법론		-	-	-	1	2	-	2	1	3
정보자원관리/장서관리/개발		-	-	7	-	10	9	17	9	26
정보제공 서비스		2	-	6	1	18	7	26	8	34
정보이용자연구		-	-	2	3	16	5	18	8	26
도서관경영/행정		1	-	2	2	16	7	19	9	28
도서관정보 정책/도서관평가/정보사회경제		1	-	2	5	17	3	20	8	28
정보네트워크/협력체제/유통		3	-	2	4	14	8	19	12	31
분류/목록		6	-	14	6	36	22	56	28	84
색인/초록		-	-	3	7	8	18	11	25	36
정보시스템/기술/데이터베이스		1	-	6	14	23	30	30	44	74
정보검색/정보탐색과정/탐색평가		-	-	3	13	18	30	21	43	64
자동화/디지털도서관		-	-	1	4	6	4	7	8	15
인터넷자원/전자정보/멀티미디어		-	-	-	-	8	10	8	10	18
계량 정보		-	-	2	6	11	13	13	19	32
기록 관리학		-	-	-	-	1	-	1	-	1
서지학		4	-	3	-	17	-	24	-	24
기타		-	-	1	2	3	2	4	4	8
합 계		31	-	80	73	278	192	389	265	654

* 문헌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 : 정보관리학회지

* 굵은 글자가 키워드임.

<표 2> 세부주제영역과 학회지간의 차별성

구 분	통계값	자유도	유의수준
카이자승값	57.44	21	.000
근사유의 확률	65.39	21	.000
학회지간 관계	10.62	1	.001
유효 사례수	260	-	-

3.2 이론 활용 현황

분석항목은 논문 생산성을 학회지별로 10년 단위로 하여 이론 활용 논문수와 이론 활용 횟수를 조사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경우 1970년대는 학술지 발간의 초창기로 10년간 31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그 중 6편(19.4%)의 논문에서 이론 활용은 9회이며, 1980년대는 80편의 논문이 생산되어 14편(17.5%)의 논문에서 이론 활용은 29회가 있었다. 1990년대는 학술지의 발간이 반년간에서 계간으로 확대되면서 발표된 연구 논문수는 278편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그러나 연구논문에서 이론을 활용한 논문은 37편(13.3%)에 67회의 이론이 활용되어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전체적으로 이론을 활용한 논문의 비율은 14.7%이며, 이론을 활용한 논문 1편당 1.84회의 이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관리학회지는 1984년에 창간되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주로 전통적인 도서관학 영역보다는 정보학 영역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에 발표된 73편의 논문 중에서 26편의 논문에서 57회의 이론이 활용되어, 35.6%의 논문에서 1편당 2.19회의 이론이 활용되었다. 1990년대는 192편의 논문에서 48편(25.0%)의 논문이 98회의 이론을 활용하였다. 정보관리학회지 전체로 볼 때, 265편의 논문에서 74편(27.9%)이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이론을 활용한 논문 1편당 2.09회의 이론이 활용되었다.

두 학회지 654편의 논문에서 131편(20.0%)의 논문이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이론 활용 횟수는 260회로 이론을 활용한 논문 1편당 1.98회로 분석되었다. 학회지의 특성상 한국문헌정보학회지보다 정보관리학회지에서 이론 활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시대별로 전체 논문 생산량에서 이론 활용 논문수와 이론 활용 횟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시대별 연구논문 생산/이론활용 논문수 및 이론활용 빈도 현황

연대	1970-1979			1980-1989			1990-1999			계		
	논문수	이론 활용 논문수	이론 활용 횟수	논문수	이론 활용 논문수	이론 활용 횟수	논문수	이론 활용 논문수	이론 활용 횟수	논문수	이론 활용 논문수	이론 활용 횟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	6	9	80	14	29	278	37	67	389	57	105
정보관리학회지	-	-	-	73	26	57	192	48	98	265	74	155
계	31	6	9	153	40	86	470	85	165	654	131	260

3.3 활용된 이론 및 근원

우리 나라에서 문헌정보연구에 활용된 이론에 대한 분석은 <표 4>와 같다. 활용된 이론의 수는 80개이며, 이론의 근원에 대한 분포는 문헌정보학 고유의 이론이 46개로 전체의 57.5%이며, 다음으로 사회과학분야가 22개로 27.5%, 자연과학분야 10개로 12.5%, 인문과학분야 2개로 2.5%의 순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의 연구 배경이 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개 이론이 두 학회지에서 260회 활용되어 이론별 단순 활용도는 평균 3.25회이며, 학회지별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105회, 정보관리학회지에서 155회 활용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정보관리학회지에서 이론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학회지에서 5회 이상 활용된 이론으로는 Shannon과 Weaver의 정보이론(13회),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11회), Bradford의 분산법칙(10회), Ranganathan의 분류 3단계 이론(10회),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10회), Cleverdon의 재현율/정확률(9회), Luhn의 단어빈도이론(9회), Zipf의 법칙(8회), Bookstein과 Swanson의 자동색인확률모델(7회),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7회), Lotka의 저자생산성법칙(7회), Burton과 Kebler의 반감기(문헌이용률감소법칙, 6회), Cooper의 논리적 적합성 이론(6회), Saracevic의 적합성 이론(6회),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6회), Zadeh의 퍼지집합이론(6회), Belkin의 ASK(5회), Kessler의 서지결합법(5회) 순으로 이들 18개 이론은 계량정보 영역과 정보검색 영역, 색인 및 분류, 그리고 문헌정보학 일반 영역에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고유의 이론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하고 있으나, 이론의 근원이 문헌정보학 분야가 아닌 것으로는 많이 활용된 이론은 Shannon과 Weaver의 정보이론(통신공학, 13회),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컴퓨터공학, 10회), Luhn의 단어빈도이론(9회), Zipf의 법칙(언어학, 8회), Zadeh의 퍼지집합이론(통계학, 6회), Berge의 그래프이론(수학, 4회),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컴퓨터공학, 4회),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경영학, 4회), Salton의 벡터공간모델(컴퓨터공학, 4회), Von Bertalanffy의 일반시스템이론(생물학, 4회)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론 활용 횟수별 분포를 보면, 1회 이용된 이론은 30개(37.5%), 2회 이용은 14개(17.5%), 3회 이용은 11개(13.8%), 4회 이용은 7개(8.8%), 5회 이상 이용은 18개(22.5%)로 나타났다.

<표 4> 활용 이론의 근원 및 학회지별 분포

이론명	근원*	발표 학회지 및 세부주제영역**		횟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Adams의 형평이론	SS	전문직		1
Alderfer의 ERG이론	SS	전문직		1
Bates의 Berrypicking모델	LIS	검색	시스템	2
Belkin의 ASK	LIS	검색	시스템, 시스템, 검색, 시스템	5
Berge의 그래프이론	S	네트워크	분류, 검색, 검색	4
Blake & Mouton의 관리망이론	SS	경영		1
Bliss의 지식의조직화이론	LIS	분류, 분류, 분류		3
Bookstein & Swanson의 자동색인 확률모델	LIS	색인, 검색	색인, 검색, 색인, 검색, 검색	7
Bradford의 분산법칙	LIS	경영, 계량, 계량, 계량, 이용자	시스템, 계량, 계량, 계량, 계량, 일반	10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	S	계량, 경영	색인, 색인	4
Brookes의 정보학기본방정식	LIS		시스템	1
Bruner의 해석의 단계론	SS	시스템		1
Burton & Kebler의 반감기	LIS	네트워크, 계량	색인, 계량, 계량, 계량	6
Cleverdon의 재현율/정확률	LIS	시스템, 검색, 검색, 검색	색인, 검색, 검색, 검색, 검색	9
Cooper의 논리적 적합성	LIS	검색, 검색	검색, 검색, 색인, 검색	6
Cooper의 예상탐색길이척도	LIS	검색, 검색		2
Cutter의 목록법이론	LIS		목록	1
Dervin의 의미형성이론	SS	검색, 검색	시스템	3
Dewey의 사과의단계	SS	시스템		1
Dubin의 이론효율성법칙	SS		일반	1
Ellis의 정보탐색과정 8 단계모델	LIS		이용자	1
Farradane의 연관색인	LIS		색인, 시스템, 색인	3
Fiedler의 상황이론	SS	경영	경영, 경영	3
Garfield의 인용집중법칙	LIS		계량, 일반	2
Goffman의 진염이론	LIS	계량	검색, 검색	3
Greer & Hale의 정보요구분석모델	LIS		시스템, 경영	2
Gronroos의 서비스질모형	SS	서비스		1
Har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SS		일반, 자동화	2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	LIS	색인	색인, 검색, 색인, 검색, 색인, 검색	7
Harter의 심리적 적합성	LIS		검색, 검색, 검색	3
Herskovits의 문화변용이론	HU	도서관사		1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SS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경영	4
Hjølnd & Albrechtsen의 영역분석모델	LIS		일반	1
Houten의 목록의 철기시대론	LIS		목록	1
Ingwersen의 정보탐색과정모델	LIS		시스템	1
Kelly의 정보요구형성 5단계모델	SS	시스템		1
Kessler의 서지결합법	LIS	네트워크	계량, 검색, 계량, 검색	5
Krikelas의 정보탐색과정	LIS	이용자	시스템	2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6 단계모델	LIS	이용자, 시스템	경영	3
Lancaster의 적합성/필요성	LIS	검색		1
Likert의 4단계관리체제이론	SS		경영, 경영	2
Lotka의 저자생산성법칙	LIS	계량, 계량, 계량, 이용자	계량, 계량, 일반	7
Lubetzky의 목록규칙 원칙이론	LIS	목록	목록, 목록	3
Luhn의 단어빈도이론	S	색인	색인, 색인, 초록, 초록, 색인, 색인, 검색, 검색	9
Marchionini 정보탐색과정 5단계모델	LIS		시스템	1

<표 4> 활용 이론의 근원 및 학회지별 분포(계속)

이론명	근원*	발표 학회지 및 세부주제영역**		횟수
		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Markey & Cochrane의 검색전략모델	LIS	검색	검색, 검색	3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SS	전문직, 교육, 전문직		3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SS	전문직		1
McGregor의 XY이론	SS	전문직	경영, 경영	3
Mellon의 도서관불안이론	LIS	일반	이론	2
Minsky의 프레임이론	S		시스템	1
Mooers의 정보시스템 활용법칙	LIS		이용자	1
Morse의 도서대출모형	LIS	경영		1
Needham의 응집이론	S		분류	1
Osborn의 목록법위기론	LIS		목록	1
Parasuraman의 서비스질 모형	SS	서비스		1
Piaget의 스키마이론	SS	교육, 시스템		2
Ranganathan의 분류 3단계 이론	LIS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분류, 색인	10
Rosers & Kincaid의 수렴모델	SS	네트워크		1
Rouse의 도서관네트워크 이론	LIS	네트워크		1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S	색인	검색, 분류, 검색, 검색, 색인, 색인, 색인, 검색, 색인	10
Salton의 벡터공간모델	S	검색	검색, 색인, 검색	4
Saracevic의 적합성이론	LIS	검색, 계량	검색, 검색, 검색, 검색	6
Schultz의 농업개발이론	SS	시스템		1
Shafer의 추론이론	SS		검색, 시스템	2
Shank의 개념의존이론	LIS		시스템, 시스템	2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S	색인, 색인, 색인, 계량, 검색, 네트워크, 정책, 검색, 교육	네트워크, 일반, 색인, 검색	13
Skinner의 강화이론	SS	교육		1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LIS	계량, 출판	계량, 검색, 검색, 계량, 계량, 계량, 계량, 계량, 계량	11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	LIS		검색, 색인, 색인, 색인, 색인, 검색	6
Swanson의 주관적/객관적 적합성	LIS		검색, 검색	2
Swets의 E척도 모델	LIS	검색, 검색		2
Taylor의 부가가치모델	LIS		정보경제	1
Taylor의 질문협상이론	LIS	검색, 이용자	시스템, 검색	4
Von Bertalanffy의 GST	S	네트워크, 네트워크, 경영	경영	4
Wilson의 상황적 적합성	LIS		검색	1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LIS	검색, 장서개발	이용자, 시스템	4
Wyer의 최대최소이론	LIS	서비스	서비스	2
Zadeh의 퍼지집합이론	S	검색	시스템, 검색, 검색, 검색, 검색	6
Zipf의 법칙	HU	색인, 계량, 계량, 경영	색인, 계량, 색인, 일반	8
누 계		105	155	260

* 근원 : LIS-문헌정보학, SS-사회과학, S-자연과학, HU-인문과학

** 세부주제영역은 키워드로 표시함

<표 4>의 이론별 활용도에서 이론의 근원과 학회지별 이론 활용 분포에 차별성이 존재하는가(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제곱 검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회지별로 활용된 이론의 근원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문

헌정보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이론의 경우는 정보관리학회지에서 거의 배 정도의 활용 빈도가 많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배 정도 많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과학 분야의 이론은 두 학회지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표 5> 이론의 근원과 학회지별 활용 차별성
(원자료) (통계분석)

이론의 근원	학회지 *		합계
	문헌	정보	
문헌정보학	57	101	158
사회과학	24	13	37
인문과학	5	4	9
자연과학	19	37	56
계	105	155	260

구 분	통계값	자유도	유의수준
카이자승값	12.26	3	.007
근사유의 확률	12.06	3	.007
학회지간 관계	.01	1	.922
유효 사례수	260	-	-

* 학회지 : 문헌-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정보관리학회지

3.4 세부주제 영역별 활용 이론의 유형

문헌정보학 연구의 세부주제 영역별로 활용된 이론의 유형과 학회지별, 활용 연도별 현황은 <표 6>과 같다. 세부주제 영역별로 이론을 많이 활용하는 주제영역은 정보검색/정보탐색과정/탐색평가 영역으로 28개의 이론이 73회 활용되었으며, 이를 세분하면 정보검색, 탐색평가, 정보탐색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기술/데이터베이스 주제영역은 23개의 이론이 대부분 각 1회씩 이용되어 특정 이론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 색인초록 주제영역은 14개의 이론이 38회 활용되었으며, 계량정보 영역은 11개의 이론이 32회 활용되어 다른 세부주제영역보다 관련 이론의 활용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세부주제영역에서는 도서관경영/행정(12개 이론, 17회 활용), 분류/목록(9개 이론, 21회 활용), 문헌정보학 일반(9개 이론, 10회 활용), 정보네트워크(8개 이론, 10회 활용), 정보이용자연구(8개 이론, 8회 활용), 전문직(6개 이론, 9회 활용), 문헌정보학 교육(4개 이론, 4회 활용), 정보제공서비스(3개 이론, 4회 활용)의 활용으로 분석되었다.

<표 4>와 <표 6>에서 이론이 활용된 연구논문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 세부주제영역에 포함된 이론은 38개(47.5%)이며, 이 중에서 3개 이상의 세부주제영역에 활용된 이론으로는 Shannon과 Weaver의 정보이론이 7개 세부주제영역(일반, 교육,

정책, 네트워크, 색인, 검색, 계량), Bradford의 분산법칙 5개 영역(일반, 이용자, 경영, 시스템, 계량),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이 4개 영역(경영, 시스템, 색인, 계량), Wilson의 정보행위모델이 4개 영역(장서개발, 이용자, 시스템, 검색), Zipf의 법칙이 4개 영역(일반, 경영, 색인, 계량)이며, 3개 영역에 활용된 이론으로는 Berge의 그래프이론(네트워크, 분류, 검색), Burton과 Kebler의 반감기(네트워크, 색인, 계량), Cleverdon의 재현율/정확률(시스템, 색인, 검색),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6단계모델(이용자, 경영, 시스템), Lotka의 저자생산성법칙(일반, 이용자, 계량), Saracevic의 적합성이론(시스템, 검색, 계량),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출판, 검색, 계량), Taylor의 질문협상이론(이용자, 시스템, 검색), Zipf의 법칙(일반, 색인, 계량)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26개 이론이 2개 영역에, 그리고 42개 이론이 1개의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학회지별 이론 활용의 패턴분석은 특정 학회지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편포현상(skewed distribution)이 나타났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중심으로 이론이 활용된 세부주제영역은 전문직, 도서관사 및 출판, 문헌정보학교육/도서관교육/독서지도, 정보제공서비스, 정보네트워크/협력체제/유통으로 정보관리학회지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으로 정보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이론이 활용된 주제영역은 문헌정보학 일반/정보이론/개념, 색인/초록, 정보검색/정보탐색과정/탐색평가영역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세부주제영역은 비슷한 정보로 이론이 활용되었다.

세부주제 영역별로 활용된 이론 유형이 학회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연구가설 3)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래 데이터 항목(cell)의 상당수가 5이하인 관계로 통계적인 의미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의 활용 횟수가 많아질 경우 새로운 분석이 가능하다.

이론별로는 Ranganathan의 분류이론,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Luhn의 단어빈도이론,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이론,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 Zadeh의 퍼지집합이론 등은 정보관리학회지에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다.

분석대상 기간인 1999년까지 이론이 전혀 활용되지 않은 분야는 연구방법론, 인터넷/전자정보/멀티미디어 주제영역이며, 기록관리학은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여 연구논문이 없으며, 서지학은 분석대상인 두 학회지에 거의 게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6> 세부주제 영역별 활용 이론의 유형

세부주제영역	이론명	발표 학회지 및 연도		횟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이론 /개념	Bradford의 분산법칙		95	1
	Dubin의 이론효율성법칙		93	1
	Garfield의 인용집중법칙		99	1
	Har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95	1
	Hjøland & Albrechtsen의 영역분석 모델		95	1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95	1
	Mellon의 도서관불안이론	96	93	2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91	1
	Zipf의 법칙		95	1
전문지	Adams의 형평이론	97		1
	Alderfer의 ERG이론	97		1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78, 97, 98		3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78, 97		2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97		1
	McGregor의 XY이론	78		1
도서관사	Herskovits의 문화변용이론	83		1
출판/저작권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97		1
문헌정보학교육 /도서관교육 /독서지도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96		1
	Piaget의 스키마이론	97		1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98		1
	Skinner의 강화이론	92		1
연구방법론	-			0
정보자원/상서관리/개발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95		1
정보제공서비스	Gronroos의 서비스질모형	98		1
	Parasuraman의 서비스질모형	98		1
	Wyer의 최대·최소이론	81	86	2
정보이용자연구	Bradford의 분산법칙	97		1
	Ellis의 정보탐색과정 8 단계모델		97	1
	Krikelas의 정보탐색과정이론	96		1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6 단계모델	95		1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97		1
	Moers의 법칙		84	1
	Taylor의 질문협상이론	95		1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84	1
도서관경영/행정	Blake & Mouton의 관리망이론	90		1
	Bradford의 분산법칙	75		1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	89		1
	Fiedler의 상황이론	93	89, 92	3
	Greer & Hale의 정보요구분석모델		97	1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88	1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6 단계모델		97	1
	Likert의 4단계 관리체제이론		88, 89	2
	McGregor의 XY이론		88, 89	2
	Morse의 도서대출모형	75		1
	Von Bertalanffy의 GST	93	92	2
	Zipf의 법칙	97		1
도서관정보정책/도서관 평가/정보사회경제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93		1
	Taylor의 부가가치모델		90	1

<표 6> 세부주제 영역별 활용 이론(계속)

세부주제영역	이론명	발표 학회지 및 연도		횟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정보네트워크 /협력체제 /유통	Berge의 그래프이론	91		1
	Burton & Kegler의 반감기	73		1
	Kessler의 서지결합법	91		1
	Rogers & Kincaid의 수렴모델	91		1
	Rouse의 도서관 네트워크 이론	91		1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91	87	2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91		1
	Von Bertalanffy의 GST	86, 91		2
분류/목록	Berge의 그래프이론		84	1
	Bliss의 지식의 조직화 이론	92, 97, 98		3
	Cutter의 목록법이론		97	1
	Houten의 목록의 철기시대론		97	1
	Lubetzky의 목록규칙/원칙론	91	95, 97	3
	Needham의 응집이론		84	1
	Osborn의 목록법 위기이론		97	1
	Ranganathan의 분류의 3단계이론	70, 85, 87, 91, 92, 92, 95, 98	87	9
색인/초록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84	1
	Bookstein & Swanson 자동색인확률 모델	82	87, 93	3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		90, 96	2
	Burton & Kebler의 반감기		87	1
	Cleverdon의 정확률/재현율		91	1
	Cooper의 논리적 적합성		88	1
	Farradane의 연관색인		84, 88	2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	82	84, 88, 96	4
	Luhn의 단어빈도이론	82	86, 87, 89, 92, 93, 96	7
	Ranganathan의 분류의 3단계이론		88	1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92	87, 88, 93, 96	5
	Salton의 벡터공간모델		96	1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79, 82, 85	96	4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이론		87, 88, 93, 96	4
	Zipf의 법칙	82	84, 88	3
	정보시스템 /기술 /데이터베이스	Bates의 Berry-Picking 검색모델		99
Belkin의 ASK			90, 91, 94	3
Bradford의 분산법칙			85	1
Brookes의 정보학 기본방정식			94	1
Bruner의 해석의 단계론		98		1
Cleverdon의 정확률/재현율		79		1
Dervin의 의미형성이론			94	1
Dewey의 사고의 단계		98		1
Farradane의 연관색인			86	1
Greer & Hale의 정보요구분석모델			95	1
Ingwersen의 정보탐색과정모델			94	1
Kelly의 정보요구형성 5단계모델		98		1
Krikelas의 정보탐색과정이론			95	1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5단계모델		98		1
Marchionini의 정보탐색 5단계모델			99	1
Minsky의 프레임이론			90	1
Piaget의 스키마이론		98		1
Schultz의 농업개발이론		85		1
Shafer의 추론이론		91	1	

<표 6> 세부주제 영역별 활용 이론의 유형 (계속)

세부주제영역	이론명	발표 학회지 및 연도		횟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정보시스템 /기술 /데이터베이스	Shank의 개념의존이론		86, 90	2
	Taylor의 질문협상이론		94	1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94	1
	Zadeh의 퍼지집합이론		90	1
(정보검색)	Bates의 Berrypicking 검색모델	93		1
	Belkin의 ASK	95	93	2
	Berge의 그래프이론		85, 86	2
	Bookstein & Swanson 자동색인확률 모델	95	93, 99, 99	4
	Goffman의 전염이론		85, 86	2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		88, 93, 99	3
	Kessler의 서지결합법		85, 98	2
	Luhn의 단어빈도이론		96, 97	2
	Markey & Cochrane 검색전략 모델	90	95, 96	3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84, 85, 85, 94	4
	Salton의 벡터공간모델	95	90, 99	3
	Shafer의 추론이론		91	1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89, 93	99	3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85, 86	2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이론		84, 97	2	
(정보탐색과정)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93		1
	Zadeh의 퍼지집합이론	91	90, 93, 93, 93	5
	Dervin의 의미형성이론	93, 93		2
	Taylor의 질문현상이론	93	96	2
	Cleverdon의 정확률/재현율	81, 89, 90	95, 95, 96, 96	7
	Cooper의 논리적 적합성	81, 88	85, 86, 96	5
	Cooper의 예상탐색길이척도	81, 89		2
	Harter의 심리적 적합성		96, 97, 98	3
	Lancaster의 적합성 필요성	81		1
	Saracevic의 적합성이론	89	86, 86, 97, 98	5
	Swanson의 주관적/객관적 적합성		96, 97	2
	Swets의 E 척도모델	81, 93		2
	Wilson의 상황적합성이론		96	1
	자동화/디지털도서관 인터넷/전자정보	Har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99
-				0
계량정보	Bradford의 분산법칙	90, 93, 94	88, 93, 94	6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	87		1
	Burton & Kebler의 반감기	94	88, 94, 94	4
	Garfield의 인용집중법칙		93	1
	Goffman의 전염이론	87		1
	Kessler의 서지결합법		85, 93	2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90, 93, 94	88, 93	5
	Saracevic의 적합성이론	87		1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87		1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85, 86, 89, 92, 93, 93, 97	7
Zipf의 법칙	90, 93	88	3	
기록관리학	-			0
서지학	-			0
기타	-			0
누 계		105	155	260

3.5 이론의 활용성

이론의 통합적인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론의 활용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한 후, 이론의 활용 정도에 따른 5등급의 서열척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 활용도, 이론별 활용도, 그리고 학회지별 활용도를 산출하였다.

지난 30년간 우리 나라 문헌정보연구 전체적인 이론 활용도는 2.10으로 이론 활용 5단계 기준의 2단계에 해당하는 배경연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7>과 <표 9>의 분석에서 학회지별 활용도는 정보관리학회지가 2.20,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94로 정보관리학회지의 연구논문에서 더 많은 이론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관리학회지의 경우 이론의 활용수준이 4단계와 5단계에 해당하는 이론응용과 분석평가에 해당되는 것이 27회(17.4%)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13회(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 활용도는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22가지 세부주제영역에서 두 학회지 모두 반 정도의 주제영역에서 거의 이론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사, 출판/저작권, 연구방법론, 정보자원개발/장서관리/개발, 도서관정보정책/도서관평가/정보사회경제, 자동화/디지털자원, 인터넷자원/전자정보/멀티미디어, 기록관리학 등의 주제영역은 두 학회지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둘째, 학회지별 이론 활용의 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차별성이 나타났다. 두 학회지에서 공통적으로 이론이 활용되지 않은 세부주제영역 이외에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는 문헌정보학 일반/정보이론/개념 영역에서 이론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정보관리학회지는 전문직, 문헌정보학교육/도서관교육/독서지도, 정보제공서비스, 네트워크/협력체제/유통 영역에서 이론이 활용되지 않아 주제영역에 따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론이 활용된 모든 주제영역에서 정보관리학회지의 이론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 활용도

학회지	세부주제영역 *											
	일반	전문직	도서관사	출판	교육	연구방법	장서개발	정보제공	이용자	경영	정책	네트워크
문헌정보학회지	1.00	2.56	4.00	1.00	1.50	0	2.00	1.67	1.40	1.86	1.00	1.89
정보관리학회지	1.78	0	0	0	0	0	0	2.00	2.67	2.00	5.00	1.00
학회지	세부주제영역											계
	분류목록	색인초록	시스템	검색	자동화	전자정보	계량	기록학	서지학	기타	계	
문헌정보학회지	1.58	2.75	1.75	1.95	0	0	2.00	0	0	0	0	1.94
정보관리학회지	2.33	2.37	2.15	2.04	2.00	0	2.53	0	0	0	0	2.20

* 세부주제영역의 키워드로 표시함

이론별 활용도에 대한 분석(<표 8> 참조)은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이 23점(13회 활용)으로 가장 높았으며,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22점(11회),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21점(10회),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이 21점(7회), Bradford의 분산법칙 19점(10회 활용) 등 이론별 활용도에서 환산점수가 10점 이상은 20개 이론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이론은 대부분 정보학과 관련성이 높은 색인, 검색, 계량 영역에 해당되는 주제분야로 정보관리학회지의 이론 활용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주요 이론별 활용도

이론명	점수/횟수	활용주제영역(점수/횟수)*
Shannon과 Weaver의 정보이론	23/13	일반(2/1), 교육(1/1), 정책(1/1), 네트워크(2/2), 색인(10/4), 검색(6/3), 계량(1/1)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22/11	출판(1/1), 네트워크(2/1), 검색(4/2), 계량(15/7)
Salton의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21/10	분류(1/1), 색인(11/5) 검색(9/4)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	21/7	색인(11/4), 검색(10/3)
Bradford의 분산법칙	19/10	일반(1/1), 이용자(2/1), 경영(1/1), 시스템(2/1), 계량(13/6)
Cleverdon의 재현율/정확률	18/9	색인(2/1), 시스템(1/1), 검색(15/7)
Zipf의 법칙	18/8	일반(1/1), 경영(2/1), 색인(8/3), 계량(7/3)
Burton & Kebler의 반감기	17/6	네트워크(2/1), 색인(2/1), 계량(13/4)
Luhn의 단어빈도이론	18/9	색인(15/7), 검색(3/2)
Zadeh의 퍼지집합이론	16/6	시스템(5/1), 검색(11/5)
Ranganathan의 분류 3단계 이론	16/10	분류(13/9), 색인(3/1)
Lotka의 저자생산성법칙	15/7	일반(1/1), 이용자(2/1), 계량(12/5)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	15/6	색인(9/4), 검색(6/2)
Bookstein & Swanson 자동색인 확률모델	13/7	색인(6/3), 검색(7/4)
Belkin의 ASK	11/5	시스템(6/3), 검색(5/2)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11/4	전문직(10/3), 경영(1/1)
Salton의 벡터공간모델	11/4	색인(4/1), 검색(7/3)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10/3	전문직(8/2), 교육(2/1)
Cooper의 논리적 적합성	10/6	색인(2/1), 검색(8/5)
Farradane의 연관색인	10/3	색인(8/2), 시스템(2/1)

* 활용주제영역은 키워드로 표시함

이외에도 활용 빈도와 점수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으로는 Markey와 Cochrane의 검색전략모델은 3회 활용으로 8점, Taylor의 부가가치모델은 1회 활용에 5점 등이 있다. 그리고 특정 세부주제영역에만 3회 이상 활용된 이론으로는 Bliss의 지식조직화이론(분류/목록), Fiedler의 상황이론(경영), Harter의 심리적 적합성(검색), Lubetzky의 목록규칙/원칙이론(목록), Markey와 Cochrane의 검색전략모델(검색)로 분석되었다.

<표 9>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별 활용성 분석

세부주제영역	이론명	이론 활용수준 *										이론별 활용도		주제별 활용도 (평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문헌	정보	
		SC	BR	TD	TA	AE	SC	BR	TD	TA	AE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이론 /개념	Bradford의 분산법칙						1						1	1+16 =17 17/10= (1.70)
	Dubin의 이론효율성법칙									1			4	
	Grafield의 인용집중법칙						1						1	
	Harbermas 의사소통행위이론							1					2	
	Hjøland & Albrechtsen의 영역분석 모델								1				3	
	Lotka의 저자생산성법칙						1						1	
	Mellon의 도서관불안이론	1					1					1	1	
	Shannon & Weaver 정보이론							1					2	
	Zipf의 법칙						1						1	
전문직	Adams의 형평이론	1										1		23+0 =23 23/9= (2.56)
	Alderfer의 ERG이론	1										1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1		2							10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2							8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1										1		
	McGregor의 XY이론		1									2		
도서관사	Herskovits의 문화변용이론				1							4		(4.00)
출판/저작권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1										1		(1.00)
문헌정보학 교육 /도서관교육 /독서지도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1									2		6+0=6 6/4= (1.50)
	Piaget의 스키마이론		1									2		
	Shannon & Weaver 정보이론	1										1		
	Skinner의 강화이론	1										1		
연구방법론	-													0
정보자원개발 /장서관리 개발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1									2		(2.00)
정보제공 서비스	Gronroos의 서비스질모형		1									2		5+2=7 7/4= (1.75)
	Parasuraman 서비스질모형		1									2		
	Wyer의 최대·최소이론	1						1				1	2	
정보이용자 연구	Bradford의 분산법칙		1									2		7+8= 15 15/8= (1.88)
	Ellis의 정보탐색과정 8단계									1			4	
	Krikelas 정보탐색과정이론	1										1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6단계	1										1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1									2		
	Mooers의 법칙							1					2	
	Taylor의 질문협상이론	1										1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1			2		
도서관경영 /행정	Blake & Mouton의 관리망이론			1								3		13+20= 33 33/17= (1.94)
	Bradford의 분산법칙	1										1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	1										1		
	Fiedler의 상황이론		1				1			1		2	5	
	Greer & Hale의 정보요구 분석모델									1			4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1						1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6단계							1					2	
	Likert 4단계 관리체제이론							2					4	
	McGregor의 XY이론						1	1					3	
	Morse의 도서대출이론		1									2		
	Von Bertalanffy의 GST	1					1					2	1	
Zipf의 법칙		1									2			

<표 9>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별 활용성 분석(계속)

세부주제영역	이론명	이론 활용수준 *										이론별 활용도		주제별 활용도 (평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활용도				
		SC	BR	TD	TA	AE	SC	BR	TD	TA	AE	문헌	정보			
정책/평가 /정보경제	Taylor의 부가가치모델												1	5	1+5=6 (3.00)	
	Shannon & Weaver 정보이론	1												1		
정보네트워크 /협력체제 /유통	Berge의 그래프이론		1											2		17+1=
	Burton & Kebler의 반감기		1											2		18
	Kessler의 서지결합법		1											2		18/10=
	Rogers & Kincade 수렴모델		1											2		(1.80)
	Rouse 도서관네트워크이론				1									4		
	Shannon & Weaver 정보이론	1					1							1	1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1											2		
Von Bertalanffy의 GST	2												2			
분류 /목록	Berge의 그래프이론							1							2	19+21 = 40 40/21 = (1.90)
	Bliss의 지식조직화이론		3											6		
	Cutter의 목록법이론								1						3	
	Houten 목록의 철기시대론								1						3	
	Lubetzky의 목록규칙/원칙론		1					1	1					2	5	
	Needham의 응집이론							1							2	
	Osborn의 목록법 위기이론								1						3	
	Ranganathan의 분류의 3단계 이론	5	3					1						11	2	
Salton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1								1		
색인 /초록	Bookstein & Swanson의 자동색인 확률모델		1						2					2	4	22+71 = 93 93/38 = (2.48)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								1						2	
	Burton & Kebler의 반감기								1						2	
	Cleverdon의 재현율/정확률								1						2	
	Cooper의 논리적 적합성								1						2	
	Farradane의 연관색인									1		1			8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				1			1	1		1			4	7	
	Luhn의 단어빈도이론				1			1	5					4	11	
	Ranganathan의 분류의 3단계 이론									1					3	
	Salton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1					1	2		1			2	9	
	Salton의 팩터공간모델										1				4	
	Shannon & Weaver 정보이론	1	1			1			1					8	2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 이론							1	2		1				9	
	Zipf의 법칙		1						1		1			2	6	
정보시스템 /기술 /데이터베이스	Bates의 Berrypicking 검색모델							1							1	14+43 = 57 57/28 = (2.04)
	Belkin의 ASK							1	1	1					6	
	Bradford의 분산법칙								1						2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								1						2	
	Brookes 정보학 기본방정식								1						2	
	Bruner의 해석의 단계론		1											2		
	Cleverdon의 재현율/정확률	1												1		
	Dervin의 의미형성이론								1						2	
	Dewey의 사고의 단계		1											2		
	Farradane의 연관색인								1						2	
Greer & Hale의 정보요구 분석모델								1						2		

<표 9>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별 활용성 분석(계속)

세부주제영역	이론명	이론 활용수준 *										이론별 활용도		주제별 활용도 (평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문헌	정보		
		SC	BR	TD	TA	AE	SC	BR	TD	TA	AE				
정보시스템 /기술 /데이터베이스	Ingwersen의 정보탐색과정 모델						1						2		
	Kelly정보요구형성5단계모델		1										2		
	Krikelas 정보탐색과정이론						1							2	
	Kuhlthau의 6단계정보탐색과정		1										2		
	Marchionini의 정보탐색모델						1							2	
	Minsky의 프레임이론								1					3	
	Piaget의 스키마이론		1											2	
	Saracevic의 적합성이론	1												1	
	Schultz의 농업개발이론		1											2	
	Shafer의 추론이론						1								1
	Shank의 개념의존모델							1	1						5
	Taylor의 질문협상이론							1							2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1							2
Zadeh의 퍼지집합이론											1			5	
정보검색 /정보탐색과정 /탐색평가	Bates의 Berrypicking 검색모델		1										2		
	Belkin의 지식이상상태	1								1			1	4	
	Berge의 그래프이론						1	1						3	
	Bookstein & Swanson의 자동색인 확률모델	1						3					1	6	
	Goffman의 전업이론						1	1						3	
	Harter의 2-포아송분포론							1		2				10	
	Kessler의 서지결합법						1	1						3	
	Luhn의 단어빈도이론						1	1						3	
	Markey & Cochrane의 검색 전략모델		1					1		1			2	6	
	Salton 문헌분리가 가중기법						1	2		1				9	
	Salton의 벡터공간모델	1						1		1			1	6	
	Shafer의 추론이론									1				4	
	Shannon & Weaver 정보이론	1		1				1					4	2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2						4	
	Sparck Jones 역문헌빈도이론							1		1				6	
	Wilson의 정보행위모델	1											1		
	Zadeh의 퍼지집합이론					1		3			1			4	7
	Dervin의 의미형성이론	1	1											3	
	Taylor의 질문협상이론		1					1						2	1
	Cleverdon의 재현율/정확률		1	2				1	3					8	7
	Cooper의 논리적적합성		2					2	1					4	4
	Cooper의 예상탐색길이척도	1		1										4	
	Harter의 심리적적합성							1	2						5
Lancaster의 적합성/필요성		1											2		
Saracevic의 적합성이론							2	2						6	
Swanson의 주관적/객관적 적합성								2						4	
Swets의 Model-E 척도	1		1										4		
Wilson의 상황적합성이론							1							1	
자동화/디지털	Harbermas 의사소통행위이론							1						2	(2.00)
인터넷정보자원	-														
전자정보															

<표 9>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별 활용성 분석(계속)

세부주제영역	이론명	이론 활용수준(빈도)										이론별 활용도		주제별 활용도 (평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문헌	정보	
		SC	BR	TD	TA	AE	SC	BR	TD	TA	AE			
계량정보	Bradford의 분산법칙	2			1		1	1		1		6	7	26+48 = 74 74/32 = (2.31)
	Brillouin의 정보측정공식			1							3			
	Burton & Kebler의 반감기				1		1			2		4	9	
	Goffman의 전염이론			1							3			
	Grafield의 인용집중법칙							1				2		
	Kessler의 서지결합법							2				4		
	Lotka의 저자생산성법칙	2			1		1		1		6	6		
	Saracevic의 적합성이론	1									1			
	Shannon & Weaver 정보이론	1									1			
	Small의 동시인용분석기법						1	5		1			15	
	Zipf의 법칙	2									1	2	5	
기록관리학	-												0	
서지학	-												0	
기타													0	
누계		41	43	8	12	1	37	81	10	23	4	204	341	545
		105					155					194	220	2.10

*SC : 단순언급, BR : 배경연구, TD : 이론검토, TA : 이론적용, AE : 분석평가
 문헌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 : 정보관리학회지

이론의 활용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한 이론의 활용성에 있어 학회지별로 차별성이 있는가(연구가설 4)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10>). 앞의 분석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론 활용성에서 모두 배경연구 수준에 약간 상회하거나 부족한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10> 이론의 활용단계와 학회지별 차별성
 (원자료) (통계분석)

이론활용 단계	학회지 *		합계	구분	통계값	자유도	유의수준
	문헌	정보					
단순언급	41	37	78	카이자승값	7.38	4	.117
배경연구	43	81	124	근사유의 확률	7.41	4	.116
이론검토	8	10	18	학회지간 관계	3.64	1	.056
이론응용	12	23	35	유효 사례수	260	-	-
분석평가	1	4	5				
계	105	155	260				

* 학회지 : 문헌-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정보관리학회지

4 결론 및 제언

문헌정보연구에서 저자들의 이론의 활용성을 분석한 결과 이론의 활용 정도가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논문의 연대별 생산성과 세부주제 영역별 생산성은 1970년대 초창기에 비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대폭 증가하였으나, 연구논문에서 이론의 활용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학회지에서 30년간 이론 활용 횟수는 260회로 이론을 활용한 논문 1편당 1.98회로 분석되었다. 학회지의 특성상 한국문헌정보학회지보다 정보관리학회지에서 이론 활용성이 다소 높았다.

활용된 이론의 수는 80개이며, 이론의 근원에 대한 분포는 문헌정보학 고유의 이론이 46개, 사회과학분야가 22개, 자연과학분야 10개, 인문과학분야 2개로 문헌정보학의 연구 배경이 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회지별 활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정보관리학회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론별로는 5회 이상 활용된 이론이 18개로 주로 계량정보 영역과 정보검색 영역, 색인 및 분류, 그리고 문헌정보학 일반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세부주제 영역별로 이론을 많이 활용하는 주제영역은 정보검색/정보탐색과정/탐색평가, 정보시스템/기술/데이터베이스, 색인초록, 계량정보 순으로 다른 세부주제영역보다 관련 이론의 활용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회지별 이론 활용은 특정 학회지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편포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론이 전혀 활용되지 않은 분야도 세부주제영역의 반 정도나 되었다.

문헌정보연구 전체적인 이론 활용도는 2.10이며, 학회지별 활용도는 정보관리학회지가 2.20,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94로 정보관리학회지의 연구논문에서 더 많은 이론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이론별 활용도에 대한 분석은 Shannon과 Weaver의 정보이론이 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0점 이상인 20개의 이론이 색인, 검색, 계량 영역의 세부주제에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우리 나라 문헌정보연구의 이론 활용성에 대한 분석은 이론 개발 및 평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론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기법과 이론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론 활용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 활용 5단계'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이 마련되어야 지속적인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다. 동시에 이론 활용성에 대한 이론개발 및 일반화를 위하여 본 연구의 저자들은 다양한 학술지에 대한 분석, 특정 기간별 종단분석, 이론의 근원에 대한 개별 학문분야로의 세분화, 특정 주제영역별 학문구조 분석, 국가간 이론

활용성에 대한 비교분석, 이론개발의 효율성 평가, 타 학문분야로의 적용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연구과제로 구상 중에 있다.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이 반세기 동안 성장하면서 학문구조의 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문헌정보학계의 학문발전은 물론 현장의 정보제공 실무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이론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새로운 이론 개발과 정립만이 학계의 성장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참고문헌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23-41.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 Atkins, S. E. 1988. "Subjec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75-1984." *Library Trends*, 36: 633-658.
- Boyce, B. R. & D. R. Kraft. 1985. "Principles and theories in information science."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 153-178.
- Cronin, B. & K. Overfelt. 1994. "Citation-based auditing of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 61-72.
- Davis, C. H. & B. Cronin. 1993. "Acknowledgement and intellectual indebtedness: A bibliometric confe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4: 590-592.
- Freehan, P. E., W. L. Gragg, W. M. Havener, D. D. Kester. 1987.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s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 173-185.
- Grover, R. & Glazier, J. 1986.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ory buil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8: 227-242.
- Hjørland, B. 1998. "Theory and metatheory of information science: A new interpre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54(5): 606-621.
- Jaervelin, K. & P. Vakkar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Julien, H., & L. J. Duggan. 2000.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2(3), 291-309.
- Kumpulainen, S. 1991.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1975: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Libri*, 41: 59-76.
- McKechnie, L., & K. E. Pettigrew. 2002. "Surveying the use of theor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 disciplinary perspective." *Library Trends*, 50(3), 406-417.
- Mularski, C. A. 1991. "Institutional affiliations of author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pdating."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 179-186.
- Nour, M. M. 1985.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core library journals of 1980."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7: 261-273.
- Peritz, B. C. 1980. "The methods of library science research: Some results from a bibliometric study." *Library Research*, 2: 251-268.
- Persson, O. 1994. "The intellectual base and research fronts of JASIS 1986-1990."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 31-38.
- Pettigrew, Karen E. & P. T. Nicholls. 1994. "Publication patterns of LIS faculty from 1982-1992: Effects of doctoral program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6: 139-156.
- Shackel, B. 1997. "Human-computer interaction—Whence and whithe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8: 970-986.
- Spink, A. 1997. "Information science: A third feedback framework."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8: 728-740.
- Varlejs, J. & P. Dalrymple. 1986. "Publication outpu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acult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 71-89.
- Vakkari, P. 1997. "Information seeking in context: A challenging metatheory." in *Information Seeking in Context: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in Information Needs, Seeking and Use in Different Contexts.
edited by Vakkari, R. Sabolainen, & B. Dervin. London: Graham Taylor.
451-464.

White, H. D. & K. W. McCain. 1998. "Visualizing a discipline: An author
co-citatio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1975-199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9: 327-355.

Zweizig, D. & B. Dervin. 1977. "Public library use, users, uses: Advances in
knowledge of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adult clientele of American
public libraries." *Advances in Librarianship*, 7: 231-255.

K C I